

# 인권과 평화 '또하나의 이음'...여성예술가들의 해답찾기

### 세계여성미술가연합(IWAF) 페스타...9일까지 예술의 거리

#### 15개국 130여명 참여 본전시·특별전·부대행사 등 '다채' 국제적인 공감과 연대 구축...희망·상생 전파 '담론의장'

한국 여성의 날과 인권주간을 기념해 여성 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

세계여성미술가연합(IWAF) 페스타 광주와 (사)국제여성문화예술협회, 동구문화관 광재단이 공동주관하는 '세계여성미술연합 페스타'가 오는 9일까지 광주 예술의거리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페스타는 2018년 러시아 모스크바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한국여성의 날(1898년 여권통문 발표)과 양성평등주간, IWAF 한국 가입 20주년, 그리고 광주여성미술단체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에서 열린다.

한국에서의 IWAF 행사는 2006년 대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행사에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중국, 호주 등 15개국 130여명의 예술가들이 함께한다. 참여 작가들은 전시와 토론을 통해 여성 인권과 평등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전시는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본전시인 '예술&인권: 또 하나의 이음'은 15개국 여성 미술가 44명과 광주·전남여성미술연대 예술가 60명이 함께 꾸민다. 이들의 작품은 오는 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과 무등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동시대 전쟁, 기아, 환경문제와 결부된 사회적 이슈와 세계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담론을 제시한다.

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특별전 'ZERO-ONE&ZERO'는 남성 예술가들이 갖는 예술과 인권에 대한 내용이다. 6개국 18명 남성 작가들이 참여한다. 0에서 시작해 1로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린이들이 참여한 전시도 마련됐다.

오는 9일까지 관선재에서 열리는 특별전 'Little Artist, 어린이 예술가들의 전시회'



한국 참여작가 노정숙작



몽골 작가 린치 오치르남카이잔산작



오스트레일리아 작가 산드라 앵글리시작

에는 8개국 33명 어린이가 함께 한다. '평화'와 '인권'에 대한 어린이들의 순수한 생각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퍼포먼스와 각 국가 전통문화 패션쇼 등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여성예술가연합 페스타 기획을 맡은 선영현 총감독은 "전쟁과 기아,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과 연대는 국제적 협력과 해결책 모색에 필수 요소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글로벌 문제를 조명하며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예술이 사회 변화의 도구로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공감하고 연대하고 변화

를 만들어가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여성예술가연합(IWAF)은 1988년 중국 북경 Central Academy of Fine Art에서 정식 협회로 발족했다.

이후 2년마다 각 나라를 순회하며 전시와 컨퍼런스를 열고 세계여성예술 발전에 힘써오고 있다. /최명진 기자

## 신쾌동류 거문고산조·춘향가 판소리 향연

### 정민조, 신혜인 무대...내일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7일 오후 3시 토요일상설공연 무대로 판소리·산조 공연을 펼친다.

이날 첫 무대는 국가무형유산 제16호 거문고산조 이수자 정민조의 '성음, 신쾌동류 거문고산조'다. 신쾌동류 거문고산조는 신쾌동(1910-1977)이 그의 스승 백낙준으로부터 가락을 전해 받은 뒤 이에 자신이 창작한 새로운 가락을 더해 만든 산조다.

산조 연주자로 나서는 정민조는 중앙대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농화국악대회 명인부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중앙대 및 광주예고 강사로 출강하며 동아시아시아음악연구회 및 중앙거문고 연

주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옛 소리의 맛을 그대로 표현하고 생동감 넘치는 특유의 맛을 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단은 전남도무형유산 제29-3호 판소리 고법이수자 박준호와 함께 한다.

다음 무대로 소리꾼 신혜인이 판소리 춘향가 중 초앞 대목부터 이별가 대목 주요 눈대목을 들려준다. 남원부사 아들 이몽룡이 되기 월매의 딸 춘향과 사랑하는 이야기다. 봉건사회 모순 속 인간성의 회복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국문학적 가치가 높으며, 조선 말 시민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제30회 전국고수대회 명고부 대상을 수



정민조



신혜인

향안 오영기가 장단을 맡는다. 신혜인은 국가무형유산 제23호 가 아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로서 전남도립국악단 장악부 비상임단원 및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장악부 지도교사를 역임했다. 현재 창작국악그룹 그루보컬로 활동 중이며 국악양상을 토리대 표를 맡고 있다.공연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 진도서 만나는 세계 인류무형유산 무대

### 내일 남도국악원 토요일상설공연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우리 문화,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기획공연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총 22개 종목 중 4개 종목을 선보인다.

먼저, 신라 처용설화에 기원을 둔 궁중무용 '처용무'가 공연의 서막을 연다.

다음으로 소리꾼과 고수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춘향이와 몽룡의 이별을 노래하는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이 오



국립남도국악원 '처용무' 공연 모습

리정 이별 후 집으로 돌아오는 대목' 무대에 이어 우리나라 대표 민요 각 지역 아리랑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갖가지 놀이를 순서대로 구성해 판놀음에서의 솜씨를 보여

주기 위해 벌이는 풍물굿인 농악 '판굿'이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제32회 김유정 백일장

접수 24. 9. 3 ~ 10. 1  
개최 24. 10. 17

김유정문학촌은 한국소설문학사의 새 지평을 연 춘천 출신 김유정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오는 10월 17일 '제32회 김유정 백일장'을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개최합니다. 미래의 한국문단을 이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이번 백일장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4년 9월 3일(화) ~ 10월 1일(화) 까지

**응시자격**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동등연령 청소년 (2006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생)

**개최일시**  
2024년 10월 17일(목) 11시, 김유정문학촌

**응시부문**  
시(시조포함), 산문

**접수방법**  
김유정문학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two\_kimyujeong@naver.com)

**문의**  
033) 261-4650, 김유정문학촌 사무국

주최 춘천문화재단
주관 김유정문학촌 강원도민일보
후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